

IT/전기전자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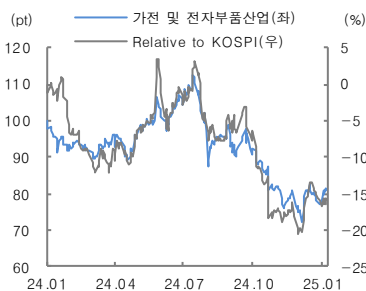
투자 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Rating & Target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2	8.7	-5.8	-8.3
상대수익률	2.0	5.5	-9.5	-7.3



대형주 중심 비중 확대, 중국 내수 부양 정책 효과 기대

- 25년 1월 셋째주, IT/전기전자내 대형 IT 기업 중심의 비중확대 전략을 유지
- 1월 긍정적인 이슈는 중국의 내수 활성화 정책과 갤럭시S25 출시 기대감
- LG전자 4Q영업이익 컨센서스 하회. 4Q 실적보다 25년 실적 성장에 집중

중국 내수의 활성화 정책 발표 : IT기기 구입에 보조금 지급

2025년 1월 셋째주, IT 및 전기전자내 대형 IT 기업 중심의 비중확대 전략을 유지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024년 4Q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대비 각각 큰 폭으로 하회하였다. 삼성전자는 범용 메모리에서 출하량 감소 및 가격 하락, 파운드리에서 적자 확대 예상으로 6.5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다. LG전자도 H&A의 매출 성장은 긍정적이나 비용 반영으로 영업이익은 1,461억원(연결)을 기록하였다. 4Q24에 IT기기 수요 부진과 재고조정으로 예상대비 부진한 실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잠정실적 발표일(1/8 수)에 삼성전자는 3.4%, LG전자는 1.4% 상승하였다. 부진한 실적의 선반영과 추가적인 이익 하향 가능성이 적어진 점, 주가의 저평가(밸류에이션 매력) 관점에서 매수 분위기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1Q25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증가 및 2025년 하반기에 수요 회복 및 실적 개선을 예상한다. 현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저평가 관점에서 비중확대 투자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소형주보다 대형 IT 기업 중심으로 저점 매수를 유지한다.

2025년 1월 긍정적인 이슈는 중국의 내수 활성화 정책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부는 2025년 1월 8일에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 강도, 범위 확대'를 발표하였다. 여기서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500위안(약1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내수 시장 활성화에 상대적으로 주력할 예정이다. 스마트기기에 AI기능 적용으로 교체 수요를 기대한 시점에서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2025년 중국에서 IT 기기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면 수동부품(MLCC) 중심으로 수혜가 전망된다. 국내에서 2024년 12월 26일,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시행은 6월말로 예상 가운데 스마트폰의 재고 소진과 신모델 판매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1월에 삼성전자의 갤럭시S25 출시 기대감이 높다. 갤럭시S25는 U 업그레이드와 AI 기능 확대, 그리고 추가로 슬림형 모델의 출시도 예상, 2025년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 성장을 기대한다.

LG전자, 4Q24 실적은 컨센서스대비 하회

LG전자의 2024년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22.7조원(2.7% qoq/0.2% yoy), 영업이익은 1,461억원(-80.6% qoq/-53.3% yoy)을 기록하였다.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하였다. 실적 부진 배경은 1) 사업재편과정에서 선제적인 비용 반영 2) VS(전장), BS(B2B)에서 수요 둔화로 수익성이 예상을 하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4Q가 전통적으로 재고조정 및 선제적인 비용을 반영한 경향이 존재, 부진한 실적보다 2025년 실적 성장 관점에서 주가의 상승 전망을 기대한다. 가전(H&A)이 볼륨업 및 구독가전의 전략으로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경쟁사대비 신규 제품의 추가 및 프리미엄 비중 확대로 매출 성장은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다. TV(HE)도 웹OS 전략 확대로 경쟁력 우위, OLED의 판매 증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CES2025, 자율주행과 로봇에서 신기술, 신제품 공개가 많음

CES2025에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자율주행 및 로봇 시장의 성장을 언급하였다. CES2025에서 AI와 모빌리티가 메인 주제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및 로봇 분야에서 다수 기업 참가 및 기술, 신제품이 공개되었다. AI가 온디바이스를 넘어선 생성형AI로 진화하여 모빌리티와 로봇에 수요 인식이 이전대비 높아졌다. 모빌리티는 IT 기업의 참여로 자율주행 기술 발전, 공유경제/구독경제의 성장에 기여한다. 로봇은 디지털헬스와 스마트기기의 접목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개발,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다. 2025년 로봇(로보틱스)과 자율주행의 이슈를 주목한다.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박강호)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등급관련사항]

산업 투자의견	기업 투자의견
Overweight(비중확대):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 상승 예상	Buy(매수):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추가 상승 예상
Neutral(중립):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10%p 추가 변동 예상
Underweight(비중축소):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하회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추가 하락 예상

[투자의견 비율공시]

구분	Buy(매수)	Marketperform(중립)	Underperform(매도)
비율	93.1%	6.9%	0.0%

(기준일자: 20250108)